

한말 의병장의 옥중 한시에 나타난 내면세계 고찰

한길로*

정재 이석용을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일제에 의해 “삼남 적과·제일 폭도 수괴·자칭 의병 수괴”로 명명되며, 훗날 형장에서 최후의 날을 맞았던 임실 출신의 의병장 정재 이석용(靜齋 李錫庸, 1877~1914)의 옥중 시에 주목한 논문이다. 작품들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사형’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결합 되어 창작되었다. 죽음을 앞둔 자신의 내면을 토로한 그의 시에는 의병장으로서의 투철한 저항 의지와 구국 항쟁 정신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다가오는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던 ‘인간적인 번민’ 역시 발견되는데, 가족에게 보내는 작품에는 그의 내면에 영긴 진한 울민과 비애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 즉 그의 옥중시는 민족 공동체에 주어졌던 가혹한 탄압과 폭력적 통치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막아내려다 이내 산화하고 말았던 ‘젊은 의병장’들의 의리 정신과 고뇌가 담긴 유의미한 ‘근대 한시’이다. 요컨대, 그의 작품은 당대 의병의 뜨거운 내면의 온도를 담으면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보통의 삶’이 무너지고 짓이겨진 식민지의 실상을 매우 잘 보여준다. 동시에 무자비한 제국주의의 폭력이 각인된 민족사적 상흔이 얼룩진 공간이자, 날카롭고 강인했던 생명력을 담은 저항문학이 탄생한 산실로서의 ‘감옥’을 다시금 주목하게 한다.

주제어 정재 이석용, 『정재집』, 호남 의병, 저항문학, 옥중시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1. 서론

1894년 갑오개혁의 실시와 함께 대한제국은 근대적 감옥제도를 도입하여, 조선 왕조의 ‘전옥서’(典獄署)는 ‘감옥서’(監獄署)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개화파들이 주장한 사회 개혁의 일환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내정 개혁을 선제적으로 장악하여 자국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고자 했던 일제의 침략 정책과도 연결되었다.¹ 이후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정미 7조약·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의 조직적인 구국 항일 무력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이 항쟁은 강제병합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의병이 희생되었고 약 2,100여 명은 파견된 일군 및 일경에 체포되어 일제에 의해 구축된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이른바 ‘피고’가 되었다.²

본고에서 주목하려는 임실 출신의 의병장 정재 이석용(靜齋 李錫庸, 1877~1914)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1907년 거의한 그는 호남 일대에서 격렬한 무장 투쟁을 이어가다 중과부적으로 인해 1909년 부득이 의병을 해산, 이후 은신하며 후일을 도모했다. 1912년 중국으로 건너가 국외 독립운동을 준비하며 기회를 탐색하던 그는 1913년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향 친구의 밀고로 그해 겨울 체포되었고 그는 일제에 의해 “삼남 적괴”³·“제일 폭도 수괴”⁴·“자칭 의병 수괴”⁵로 명명되었다. 이후 재판과 사형집행을 위해 대구옥으로 이감된 그는 1914년 4월 형장에서 최

1 홍문기(2019), 「1894년 감옥규칙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 양상」, 『한국사연구』 185, 한국사연구회, p. 99.

2 김상기(2009),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호서사학회, 2009, pp. 116-118.

3 『매일신보』, 1913. 12. 16.

4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4. 2. 7.

5 『매일신보』, 1914. 5. 8.

후의 날을 맞았다. 당시 그의 나이 37세의 일이었다.

항일의병장 이석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가 직접 의병 과정을 정리한 『호남창의록』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의병 활동에 집중했다.⁶ 이 과정에서 그가 남긴 시는, 그의 의병 활동과 그의 항쟁 의지가 반영된 일부 작품이 인용되거나 소개되는 것에 그쳤다. 물론 최근 문집 『정재집』(靜齋集)⁷ 소재 한시에 주목하며, 그가 남긴 시 세계의 전체적인 면모와 특징적 국면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⁸ 그럼에도, 그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석용의 문학 세계를 다채롭게 조명하고 또 그의 시 세계에 나타난 특징적 국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되었던 ‘옥중시’에 주목하고자 한다. 약 6개월간 이곳에서 창작된 그의 시는, 생의 마지막을 맞은 의병장의 내면과 함께 인간적인 면모까지를 대단히 압축적이면서도 짙은 농도로 담고 있어 주목된다. 동시에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 한용운·김창숙 등이 남긴 옥중 한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서정, 즉 ‘사형’을 앞둔 인물이 생의 최후를 상징하며

6 사학계에서 진척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현주(1988), 「한말 이석용의 의병운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항기(2020), 「일제강점 초기(1910년~1915년)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사림』 72, 수선사학회, pp. 41-69; 윤선자(2007), 「임실지역과 한말 항일의병」,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pp. 119-146; 이기순·권면주(2022), 「권중원의 이석용 의병투쟁 지원」, 『한국계보연구』 12, 한국계보학회, pp. 307-347; 홍근식(1988), 「정재 이석용의 의병 활동에 관한 일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영기(2016),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pp. 107-133.

7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청구기호: 古3648-62-589-139)된 『정재집』(靜齋集, 1961)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한편 2002년 『호남창의록』과 『정재집』을 완역한 『정재이석용선생문집』(오병무 역, 임실문화원)이 발간되었다. 다만 이 번역서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당한 오역과 누락(생략 포함)이 있어 보완 수정이 필히 요구된다.

8 해당 연구에서는 그의 시 세계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면모를 ‘일제에 대한 저항과 선열 정신의 계승’으로 여기고, 그의 시에는 대한제국기 의병의 내면적 표상이 울음이 새겨져 있다고 분석했다[한길로(2024), 「정재 이석용의 시 세계 고찰」, 『민족문화』 89,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pp. 93-114].

남긴 시의 특수한 일면 또한 담고 있기에 보다 세밀한 조명을 요한다.⁹

요컨대 본고는 이석용의 문학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는 동시에 그의 작품을 통해 ‘의병 문학’¹⁰에 대한 연구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근대 한시’라는 범주에서 의병 문학이 갖는 위상과 의의에 대해 재론하려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감옥’이라는 공간은 지사 및 의병장들의 처절한 저항이 전개된 민족사의 유의미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의병들의 강렬했던 투쟁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이 담긴 한시가 창작된, 주목해야 할 ‘문학적 장소’임을 환기하려 한다.

2. 투옥에서 사형까지의 과정과 옥중 한시의 현황

1907년 이후, 의병과 연관되어 감옥에 갇힌 상당수는 소위 ‘강도·내

-
- 9 일제 강점기, 감옥에서 창작된 한시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이후에 투옥된 인물에 집중되었다. 주요 인물로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1879~1962), 심산(心汕) 조성민(趙成珉, 1879~1952), 단애(檀崖) 윤세복(尹世復, 1881~1960) 등이 있다[이종건(2005), 「만해 한용운의 시조와 한시」, 『시조학논총』 23, 한국시조학회, pp. 133-159; 송희복(2020), 「한용운과 호치민(胡志明)의 비교 연구: 옥중 한시 및 자국어 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82, 동악어문학회, pp. 85-119; 박관식(2023), 「만해의 옥중선시(獄中禪詩)와 중도(中道) 사상」,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pp. 147-178; 려중동(1979), 「심산 연구: 옥중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4, 배달학회, pp. 59-85; 권영호(2004), 「심산 김창숙 시에 나타난 자탄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21, 대동한문학회, pp. 277-307; 이은영(2024), 「독립투사 심산 조성민의 한시 연구」, 『한문학보』 51, 우리한문학회, pp. 281-314; 이승수·이용근·강동우(2024), 「단애 윤세복의 옥중시 산고」, 『국제언어어문학』 58, 국제언어어문학회, pp. 227-260].
- 10 의병 문학은 ‘의병과 의병 활동을 소재나 주제로 다룬 작품’을 뜻하고 주요 유형은 크게 ‘의병가사·의병한시·의병민요·의병수필·의병설화’로 대별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창의록이나 격문류도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병 한시는 ‘망국’을 개탄하는 우국시와 ‘의(義)를 내세운 저항시, 그리고 처연한 비통이 담긴 절명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었다[김문기(1993), 「의병문학의 형성과 투영된 사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pp. 43-114; 이창식(1995), 「의병문학의 전개와 성격」, 『동국어문학』 7, 동국어문학회, pp. 155-199].

란·폭동·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형과 종신형을 받는 비율은 약 17%였다고 한다. 반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약 1%였다.¹¹ 이렇게 사실상 일제에 장악된 사법체계에 의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투옥된 의병 중에는 ‘1908~1909년 사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투쟁을 전개한 호남 의병’이 가장 많았다.¹² 이석용은 이때 불행 중 다행으로 인신의 구속을 면했지만 이미 그는 전북 의병 가운데 일제가 수배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¹³

기유년 나의 「해병(解兵)」에 화운한 시가 있어,

내 다시 그 뜻을 말하고 물러나다

有和己酉解兵詩者余復言其志而謝之

신룡(神龍)은 본래 구름을 타고 날아 볼 뜻이었건만	神龍本意得雲飛,
밤마다 강과 성에 누워 철갑옷[鐵衣] 떠올릴 뿐이구나.	夜卧江城思鐵衣.
그 누가 그해 한(漢)나라 부지하려 한 뜻을 알리오,	誰識當年扶漢志,
온갖 수단 다 쓰고도 결국 초려로 돌아간 마음을.	萬無袖手草廬歸. ¹⁴

인용한 시는 난세를 타개할 신룡(神龍)이 되어보고자 거의에 참여했지만 결국 갑옷을 벗고 기약하기 어려운 후일을 도모해야 했던 그의 통한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내면을 한(漢)나라를 다시 일으켜보고자 다섯 번의 북벌을 결행했지만 결국 좌절로 귀결된 ‘제갈량’의 심정과 비견

11 김항기(2018),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 25.

12 홍영기(2016),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p. 116.

13 윤선자(2007), 「임실 지역과 한말 항일의병」,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p. 131.

14 李錫庸, 『靜齋集』 卷1. 참고로 원운(元韻)이 된 「해병」(解兵) 원문은 곧 “湖南三月杏花飛, 貞國書生解鐵衣. 蜀鳥亦知天下事, 向人頻道不如歸.”이다.

하며, 당시의 비분과 함께 짙은 탄식을 전했다. 이렇게 1909년 3월, 의병을 해산한 그는 1911년 중국으로 몸을 옮겨 비밀 결사대 ‘임자동밀맹단’(壬子冬密盟團)을 결성하고 후일의 재의(再義)를 대비했다. 사실 이석용의 참모로 함께 기의한 동향의 전해산(全海山, 1879~1910)이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기에, 그는 자신의 체포가 곧 사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를 멈출 수 없었던 그는 1913년 겨울, 다시 고향 임실로 돌아왔으나 과거 의병에게 군량과 자금을 보내주던 친구 정동석(鄭東錫)의 밀고에 의해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¹⁵ 당시 『매일신보』는 그날의 실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전라북도에서 적괴로 유명하던 이석용 37세 된 자는 본 월 10일에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경관에게 체포되었는데 이석용은 본래 유생의 집안으로 지조가 표일하여 향당 인리(鄰里)에서 학사라 일컬어지던 인물로 지목하더니 [...]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제 죄를 도망하지 못하는 법이다. 임실군 경찰서 김순사가 각 면의 청결을 검사차로 동군 하동면(同郡 下東面)에 이르러 점심을 사서 먹고 있는 중, 어떤 조선 사람 하나가 도주하여 가는 것을 보고 괴이히 여겨 뒤를 밟아 쫓아 가본 즉, 이는 곧 연래(年來)로 수색하던 이석용이라. 즉시 달려들어 포박하려 한 즉, 이석용은 죽을 힘을 다하여 순사에게 항거하다가 드디어 도망치 못하고 김순사에게 체포되었는데 [...] 관헌의 수색이 점점 엄중함을 알고 이석용은 동년 7월 10일경에 가족(家屬)을 모두 데리고 부지거처가 되었으며 작년 11월 11일에는 12명의 부하를 데리고 전라북도 장수군 내진면(內眞面) 사무소에 돌입하여 세금 수백 원을 강탈도주 하였는데 그중 강도 7명을 당시에 경관이 포박하여 화승총 다섯 자루를 압수하였고 나머지 무리는 도주하였더니 이번에 괴수 이석용을 포박함에 이르렀다.¹⁶

15 오병무(2002), 『정재 이석용의 생애와 의병 활동』, 『정재이석용문집』, 임실문화원, p. 47.

16 「三南敵魁의 就縛」, 『매일신보』, 1913. 12. 16. 인용문의 원문은 현재의 한글맞춤법에 따

이 기사는 이석용을 향한 당국의 ‘불편한’ 시선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그의 행적을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석용과 동지들의 부단했던 독립운동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실에서 체포된 그는 우선 전주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일제의 회유가 시작되었다. 일본 경찰은 그를 회유하며 “일본의 신민이 되겠다고 말한다면 선생의 살길이 있을 것이오.”라고 했다. 그러자 이석용은 그를 호되게 꾸짖으며 “대한의 개가 될 지언정, 네 나라 신민이 되는 꼴을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일본 경찰은 불을 넣어 이석용을 죽이려 했다. 이석용은 이에 “사람 죽이는 것을 말하노니, 내가 죽이고자 하는 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그리고 우리나라 다섯 역신과 일곱 역적일 뿐이다. 또 내가 불 지르려 하는 곳은 네 나라 도쿄와 오사카로다. 하지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느니 내 스스로 나의 뜻을 저버렸구나.”라고 일갈했다고 전한다.¹⁷

1914년 2월 7일, 전주지청은 ‘방화·상해·모살·강도 및 강도상인죄’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후 대구옥으로 옮겨졌다. 참고로 1910년대 이곳에서 집행된 의병의 사형은 평양 감옥의 약 2배였고, 경성 감옥의 약 3배에 달했다고 한다.¹⁸ 판결에 불복한 그는 3월과 4월, 각각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4월 28일(음력 4월 4일) 형 집행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이후 『매일신보』는 “폭괴(暴傀)는 필수사형 - 안 죽으려 애를 쓰더니 필경 사형집행을 당했군-”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전했다. 기사는 “이석용의 마지막은 유한(遺恨)이 많은 모양으로 아무것도 할 말은 없고, 죽은 시체는 가족에게

라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 17 李元泳, 『靜齋集』 卷3, 「行狀」, “移囚全州獄數月, 倭誘曰: 若言爲日本臣民得生先生, 罵之曰: 寧爲大韓狗, 忍爲爾國臣民耶? 倭以殺放火, 難之, 先生應曰: 以殺人言之, 吾所欲殺者, 伊藤博文·寺內正毅, 及我國之五逆七賊, 所欲焚者, 爾國之東京·大坂, 此皆未能, 吾負吾志.”
- 18 진병무(2022), 「1910년대 사형 순국한 의병 연구」, 『한국학 논총』 5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p. 147.

내어주게 해달라고 유언하고 의용이 태연하였다.”¹⁹라고 전하며 그의 최후를 알렸다. 반면 그의 아들은 다음과 같이 선친의 최후와 당시 현장의 실상을 기술했다.

4월 4일 정오, 옥리(獄吏)가 교수장에 선생을 끌고 나왔다. 선생은 큰 소리로 질타하며 “너희들이 비록 오랑캐라고는 하나, 어찌 이리 사람을 죽이는 무도한 자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셨다. 이어 북쪽의 궐을 향해 “대한 만세를 세 번 외치셨고,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맹세’와 ‘작은 힘으로 원수의 나라 망하게 할[三戸亡秦] 예언’²⁰을 남기셨다. 다음 날 신문은 ‘이학사가 단두대에 올랐으나 안색 하나 변함이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형을 집행할 때 옥문 밖에는 장자 원영(元泳)²¹과 처형 고재진(高在振)²²이 있었는데 통곡하다 쓰러져 버렸다.”²³

1913년 11월 임실에서 체포된 후 전주옥을 거쳐, 대구옥에서 사형집행

19 「暴魁는 必須死刑」, 『매일신보』, 1914. 5. 8.

20 ‘삼호망진’(三戸亡秦)은 ‘초수삼호, 망진필초야’(楚雖三戸, 亡秦必楚也)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즉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은, 자기 백성 몇 명만 있어도 복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통상 원수를 갚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된다. 전국(戰國) 시대 말 초희왕(楚懷王)이 진(秦)나라에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자 초나라 사람들이 진나라를 원망하였다. 이에 당시 초남공(楚南公)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21 이원영(李元泳, 1899~1983)은 이석용의 장자로 이석용의 의거 당시 부친을 도와 비밀문서와 군자금 전달 등을 지원했고 부친의 옥고를 뒷바라지했다. 1939년 부친의 항일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유허비를 세우다가 일경에 붙잡혔고 1914년 소위 형사자분묘제초상(刑死者墳墓祭肖像) 등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2 고재진(高在振, ?~?)은 후에 이석용과 함께 연합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했던 의병장 고광순(高光詢, 1848~1907)의 아들이자 이석용의 사위이다.

23 李元泳, 『靜齋集』 卷3, 「行狀」, “四月四日正午, 獄吏曳出先生於絞首場, 先生大聲叱曰: 爾等雖夷狄, 安有如此殺人無道者乎! 北面向闕三呼大韓萬歲, 有爲厲滅賊之誓; 三戸亡秦之謠, 翌日新聞報紙曰: 李學士斷頭臺上, 顏色不變, 是時, 長子元泳與妻兄高在振, 在於在獄門外, 呼哭顛倒.”

[표 1] 옥중 한시 목록

시기	장소	시제	출처	대상
1913	임실옥	任實獄中作	『靜齋集』 卷1	자신
1914	전주옥	全州監獄中作	『靜齋集』 卷1	자신
1914	대구옥	大邱獄中自挽(二首), 大邱監獄絕命詞(二首), *「上親庭」, *「奇子元永」(四首), *「與高在振」	『靜齋集』 卷1, 2, 3	자신, 부모, 처자, 사위

참고: *은 서간문 속에 시제 없이 수록된 작품을 이른다.

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제는 수감자의 서신을 포함한 문필 활동을 금하지 않고 있었고 친척과 가족들의 면회도 허용하고 있어, 옥중에서 작성된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⁴ 문집 『정재집』 권1에 수록된 시 64제 83수 가운데 옥중에서 작성된 시는 모두 6수이고, 권2·3에는 서신 속에 수록된 무제의 옥중시 6수가 별도로 전한다. 시의 대상은 바로 자신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시 창작 장소로는 사형이 확정된 대구옥이 다수였는데, 이곳에서 창작된 시는 죽음을 앞둔 그의 내면을 담은 자만시(自挽詩)이자 임형시(臨刑詩)였고 가족들에게 남긴 작품은 유시(遺詩)의 성격이 강했다.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사실, 구한말 한시 창작 주체의 한 축이었던 의병장에는 시문을 일삼던 전통 문인이나 명망 높은 학자층도 없지 않았지만, 지방의 궁유나 상민층에 가까운 인사도 상당했다. 또 대다수가 직접 전투에 참여했기에 그들의 문학 작품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었다더라도 온전하게 전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²⁵ 즉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거나 체포되어 사형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창작과 보존,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24 李錫庸, 『靜齋集』 卷3, 「上親庭(大邱獄中)」, “此中獄規, 書信往來, 不嫌數復.”; 「上進士三從兄錫圭, “此中獄規, 親戚知舊, 并許面會, 伏望枉駕.”

25 민병수(1974), 「구한말 우국 한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2, 한국고전문학회, p. 163.

위의 현실을 반영하듯, 의병들이 남긴 한시 작품들은 대부분 부전(不傳)하거나 1~2수의 임절시(臨絕詩) 혹은 옥중시가 상당수였다. 실제로 이석용과 사돈 관계로 함께 의병 활동을 이어 가다가 순직한 고광순(高光洵)의 경우, 문집 『녹천유고』(鹿川遺稿)가 전하지만 시는 부재한다. 또 전해산(全海山, 1879~1910)의 시는 개인 문집이 아닌 옥중에서 작성된 3수를 포함 도합 4수가 송상도(宋相燾, 1871~1946)의 『기려수필』(騎驢隨筆)에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이런 배경에서 옥중에서 창작된 그의 한시 12수는 적지 않은 수량으로서, 죽음을 앞둔 의병들의 내면을 보다 면밀하게 조명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또한 개인 이석용의 중요한 문학적 흔적이면서, 작품이 부재하거나 소량이 전하는 이 시기 의병장들의 마지막 숨결과 내적 번민까지 유추하게 만든다.

3. 한시에 나타난 내면 의식과 시적 정취

이른바 ‘감옥’은 지배 권력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가장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통제를 집약적으로 응축시킨 핵심 제도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 공간에서는 옥사의 부당함과 무관하게 강제적 폭력이 지배하고 절대적인 복종이 강제된다.²⁷ 이석용이 거쳐 간 감옥과 재판장에서 도 복종은 지속적으로 강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손에 죽었는데 내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와 우리나라 5적·7적을 죽이려다가 못 죽인 것이요, 또 도쿄와 오사카에 불을 지르려다 못 한 것”이 한(恨)이라는 말로 단호하게 배격했다.²⁸ 이를 반영하듯, 이 공간에서 남긴 작품들은 충의

26 『매천야록』 권6에도 그의 「절필시」(絕筆詩) 1수가 전한다.

27 최정기(2000), 「감옥: 규율권력의 길들이기와 욕망의 탈주」, 『진보평론』 4, 뉴레디컬리뷰, p. 85.

28 한길로(2024), p. 104.

를 다한 유신(遺臣)이자 의사로서의 서정이 두드러지게 펼쳐져 있었다. 또한 의병장이 아닌 개인 이석용의 내면도 함께 드러났다.

3.1. 의사(義士)로서의 내면: 대의를 향한 헌신과 자청된 순국

‘임자동밀맹단 단장’ 이석용은 이제 외부와 철저히 배제되고 차단된 ‘감옥’이라는 공간에 강제로 편입된 수인이 되었다. 사실상 이제 그에게 ‘외부’란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제 외부는 그의 ‘내부’에만 존재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이 되었지만, 외부로 향한 그의 지향은 더욱 강렬해졌다. 자신의 육체적 투쟁은 비록 중단되고 말았지만, 내적 투쟁은 종료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민족의 투쟁이 지속되어야 함을 전했다.

임실 옥중에서 짓다 任實獄中作

연옥(燕獄) 속 차디찬 포로의 자리 걱정 않고	不憂燕獄虜穽寒,
다만 방주에 유폐된 황실이 편안하길 바랄 뿐이네.	只願房州帝室安.
괴이하게도 심간(心肝)은 더욱 맑고 투명하나니	怪底心肝尤滢澈,
대한의 하늘엔 예처럼 둥근 보름달 떠올랐도다.	韓天依舊月團圓. ²⁹

‘연옥’은 과거 남송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이 원나라에 항전하다 3년간 갇혀있던 감옥으로 억울한 혐의로 부당하게 구속된 공간을 상징한다. 또 ‘방주’(房州)³⁰는 무도한 권력이나 정치적 모함에 의해, 여러 인사가 좌천되

29 李錫庸, 『靜齋集』卷1.

30 방주: 방릉(房陵)이라도 불리며 현재의 호북성 방현(房縣)이다. 진시황은 4천에 가까운 노예(嫪毐)의 사인(舍人) 및 여불위(呂不韋)를 이곳에 감금시킨 바 있다. 또 서한의 제후나 왕도 죄를 지으면 이곳에 연금하였다고 전한다. 또 당나라 측천무후가 중종을 이곳으로 쫓아냈고 이어 송 태조가 주공제(周恭帝)를, 송 태종이 진왕(秦王) 정미(廷美)를 이곳에 연금시키기도 했다.

어 감금된 역사적 장소이다. 12월의 찬 공기가 가득한 공간에 홀로 남은 시인은 역사 인물과 사례를 떠올리며 자신이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내면의 길을 발견하려 한다. 그곳은 일제가 말한 죄인이 ‘수감’된 공간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꺾지 않았던 선현들의 의기를 직접 실현하고 재현하게 되는 ‘주체적 공간’으로 변모된다. 이는 그의 동지 전해산이 체포된 후, 일본인에게 건넨 시에서 “지금 영산강 길가에서 이별하게 되나, 두견새가 되어 핏빛 띠고 돌아올 것이다”³¹라고 포효한 것과 유사했다. 즉 자신의 뜻이 굴복되지 않았음을 ‘외부’에 고하며 민중들의 투쟁 역시 꺾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전주옥에서 남긴 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차갑고 허름한 감옥 틈새로 보이는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하는 그는, 그 빛을 조국의 ‘광명’과 연결지으며 자신의 지조를 이어갔다.³² 그는 이후 대구옥으로 이감되었는데 이는 곧 그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내 그의 시제는 ‘옥중작’에서 ‘자만’(自挽)으로 변하게 된다.

대구옥에서 자만(自挽) 大邱獄中自挽

몸은 왕족 이씨의 땅으로 돌아가나	身歸仙李土,
머리는 대한의 하늘을 이고 살 것이라네.	頭戴大韓天.
정령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테고	精靈終不滅,
호방한 기상은 천만년을 견디리라.	礪落萬千年. (其一) ³³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스스로 애도하는 자만시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분리시켜 삶 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시도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포

31 황현, 『매천야록』 권6, “從今別却榮山路, 化作啼鵲帶血歸.”

32 李錫庸, 『靜齋集』卷1, 「全州監獄中作」, “獄中猶有東西隙, 漏入韓天日月光.”

33 李錫庸, 『靜齋集』卷1.

팔하고 있는 ‘자아’를 등장시킨다.³⁴ 기구에서의 선리(仙李)가 자신의 왕조 혈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승구의 두(頭)는 자신의 이상과 지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구이다. 그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켜 인식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재’와 정신의 ‘불멸’을 대비시키며 제 죽음에 작은 위안을 건넨다. 동시에 그 정령의 성격과 본질을 퇴락(蹶落), 즉 너너락락(磊磊落落)으로 규정하면서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관통한 정신적 근본과 지향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를 시에 담아냈다.

하늘 위 해·달·별빛이 흰하듯	天上三光白,
가슴 속엔 일편단심뿐이라오.	胸中一片丹.
천추에 사내가 해야 할 일이란	千秋男子事,
나라 위해 죽어 스스로 평안해지는 것이지.	死國自平安。(其二)

첫수에서 자신의 죽음을 개인적 차원에서 살폈다면, 이어지는 위의 시에서 그는 한층 넓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관찰되고 목격되는 타인의 죽음이 아닌 목전에 놓인 스스로의 죽음과 마주한 그는 그것이 비록 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단행된 죽음이나, 사실 이 일은 자신의 신념을 따른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사내로 태어나 마땅히 ‘자청’해야만 했던 것이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죽음을 애환과 비탄이 가득한 것이 아닌 대의에 순응했던 ‘당당한 죽음’으로 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의 시는 예견되는 죽음을 논하는 ‘자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절명시’로 이어진다.³⁵

34 임준철(2017), 「자만시의 자아 혼성(hybrid)과 시적 정체성」, 『한자한문연구』 12, 고려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p. 240.

35 박동욱(2015), 「절명시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57, 한국한문학회, p. 504. 본 논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하는 절명시는 약 60여 수인데, 의병장의 경우 처형이 임박했을 때 창작된 ‘임형시’(臨刑詩)가 가장 많다고 한다.

대구 감옥에서의 절명사 大邱獄中絕命詞

한평생 군왕의 얼굴 알지 못했다 하나 一生不識君王面,
만 번 죽는데도 똑같이 사직의 신하로 돌아가려나. 萬死同歸社稷臣.
바다 밖 견양(犬羊)들 모조리 사라질지니 海外犬羊爲厲滅,
부상에 붉은 해 떠오르고 정신도 한층 새로워지리라. 扶桑紅日更精神.(下略)³⁶

거의(舉義) 당시 그의 종친들은 ‘삼대독자’의 몸이니 부디 스스로와 가문을 보전하라고 그를 타일렀다고 한다. 이에 “평생을 길러온 우국충정을 모아 이 한 몸 국난에 던지고자 결심한 지 이미 오래이오니 부디 말리지 마시지요.”³⁷라고 답했던 그였기에 사실 그는 이러한 비극적 종국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다. 시 창작의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시체는 위시가 사형집행이 매우 임박했을 때 작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시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진입한 그의 마지막 소회가 차분하고도 담담한 어조로 표출되어 있다.

절명시에는 자신의 일생이 결국 ‘불충’으로 귀결된 현실을 향한 짙은 안타까움이 감지되지만, 목전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의병장의 굵기지 않는 내면이 확인된다. 자신의 일생을 ‘사직의 안위를 위해 생사’를 걸었던 사직신(社稷臣)으로 최종 규정한 그는, 자신과 같은 신하들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조국의 독립이 쟁취될 것이라는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염원을 떠올리며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 내면에 떠오르는 여러 상념을 배제하고, 사생취의(捨生取義)의 길을 걸었던 선현들의 삶과 정신을 차분히 응시하며 조국의 독립에 대한 소망을 들고 죽음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그의 의지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죽음을 앞둔 의병장의 회환과

36 李錫庸, 『靜齋集』 卷1.

37 오병무(2002), p. 27.

비애의 정조가 아닌, 비장하고도 당당한 지기(志氣)가 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자만(自挽)을 포함, 옥중에서 창작된 위의 시들은 의병장이자 지사(志士)의 자의식을 과감하고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절망적인 현실 너머의 낙관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비굴한 삶보다는 정의로운 죽음을 택하려는 강한 열망을 시에 녹여내며, 범부의 좌절과 울분이 아닌 지사의 저항과 지기(志氣)를 표출했다. 즉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그의 시는, 단순한 우국과 탄세에 머물 수 없었던 의병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쏟아낸 저항적 자의식의 문학적 결정(結晶)이었다.

3.2. 가족으로서의 내면: ‘유족’이 될 가족을 향한 처연한 별사(別辭)

위에서 살폈던 옥중시는 사실 ‘개인’ 이석용이 아닌, 의병장이자 지사의 자의식을 기본 바탕에 두고 창작된 작품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정체성이 최소화된 글쓰기에서, 작품은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즉 작품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혈연’으로 연결된 소수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상술했던 작품과는 다른 면모가 드러났다. 애써 절제되고 억눌려 있던 개인의 비탄과 민율이 대단히 곡진히 표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구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둔 이석용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서두에서 그는 “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인지요.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네요. 제 가슴 속에 들이닥칠 통한에 어찌 다함이 있을까 합니다.”라며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통한 마음과 송구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자식이 세상에 지은 죄를 패념치 마시옵고 원통한 마음 천만번이라도 너그러이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노년의 풍광들을 보시며 편안히 지내시기를 엮드려 기도드리나이다.”라며 애타는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³⁸ 그리고 시 한

38 李錫庸, 『靜齋集』卷3, 「上親庭(大邱獄中)」, “今夕何夕, 祖考忌辰也, 下懷痛迫, 曷有其極?”

수도 삼입하여 편지글로는 차마 다 표할 수 없었던 마음을 전했다.

꿈속에선 틀림없이 양친께 절 올렸는데
 깨어나 보니 여전히 옥중의 신세입니다.
 다만 긴 세월 병 없이 건강한 노년 보내시옵고
 평온한 기운 온 집에 가득하여 일 년 내내 봄 같길 바랄 뿐입니다.
 夢裡丁寧拜兩親,
 覺來還是獄中身.
 但願千年無恙老,
 滿家和氣四時春.

시의 서두에는 꿈속의 ‘고향’과 현실 속의 ‘감옥’을 대비하며 수인이 된 작자의 내면에 가득한 근심과 비애, 또 고향을 향한 짙은 그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앞으로 영원히 조부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작자는 자신의 영원한 부재 이후를 떠올려 본다. 먼저 자식을 보낸 부모의 내면에 찾아올 ‘참척’(慘慼)의 통한을 떠올려 보고, 또 사형수가 된 자식을 보내고 난 뒤 그들 삶에 전개될 고난의 무게도 그려졌을 것이다.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무양(無恙)·화기(和氣)·춘(春)’을 소원해 보지만, 사실 이제 이 셋은 쉽게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이 자명하기에 그의 내면은 더욱 침잠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날 지은 다른 시는 위와 같은 내면의 애통이 더욱 진한 농도로 드러나 있었다.

작년의 오늘엔 고당(高堂)에 올라
 춤 소매 나풀거리며 축수의 잔을 올렸었거늘.
 새벽녘 옥중에서 일어남에 뉘마지 끊어질 듯하니,

[...] 子得罪於世, 不足介意, 千萬寬抑, 安度暮年光景, 伏禱伏禱, 偶待一詩, 伏上.”

아들도 손자도 누구 하나 부모님 곁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去年今日上高堂,

舞袖翩翩奉壽觴,

曉起獄中魂欲斷,

兒孫無一任親傍.³⁹

시인은 이 작품이 조부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내면에 찾아오는 슬픔을 조금이나마 풀고자 작성되었다고 밝혔으나 시에 드러난 감정의 농도는 대단히 짙음을 알 수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조부는 한 해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기억에서의 ‘풍경’과 현실에서의 ‘실경’을 대조하며, 참혹해져 버린 자신과 가문의 처지를 바라보는 비통한 내면을 담고 있다. 동시에 회갑 때의 화목하고 정겨웠던 장면과 새벽녘의 감옥을 대비시키며 당시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면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어 1년 사이에 소소한 일상이 무참히 파괴되어버린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그의 감출 수 없는 회한 또한 표출되었다. 독자인 본인과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해 집안의 장손마저 부재한 고향 집에서, 쓸쓸히 제사를 거행했을 부모와 하늘에 있을 조부에게도 면목이 없어진 자신의 무거운 심사 역시 반영되어 있다.

한편, 대구옥에서 당시 15살 된 그의 아들 이원영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시도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사실상 가족에게 건네는 마지막 유시(遺詩)에 가까웠다. 편지에서 그는 “아비의 일은 이미 정해진 터, 더 말할 것이 무엇 있겠느냐? 오직 바라는 바란, 네가 어린아이[童穉]의 눈으로 스스로 보지 말고 옛 군자의 뜻과 업으로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다. 세속의 습관을 털어버리고 부잡(浮雜)한 생각에서 잘 벗어나거라. 밤낮으로

39 李錫庸, 『靜齋集』卷3, 「奇子元永」, 참고로 시주(詩注)는 “右今朝非祖父主晬辰也, 謾作一詩, 小洩區區之悲.”이다.

근신하며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가업을 잘 다스리고[幹蠱], 할아버지의 곁에서 효도와 공경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다.”⁴⁰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편지에 아들과 부인에게 주는 시 그리고 사향시(思鄉詩) 한 수를 덧붙였다.

내 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自吾入獄中,
충효의 길이 전부 끝나버렸구나.	忠孝路全窮.
너는 마땅히 이 뜻을 이뤄야 할지니	汝當成此志,
참된 공부에 백배 힘쓰거라.	百倍勉眞功.

주지하듯 충효(忠孝)는, 시대적 변천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전통 사회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관적인 이념이었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도덕률이었다.⁴¹ 이석용 또한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에서, 야만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대와 온몸으로 부딪혔던 자기 삶의 근본을 ‘충효’로 압축하며 그 뜻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충효를 실천하려 했던 자신의 길은 막히고 말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어떠한 압력과 폭정에도 그 길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의 간곡한 심정을 전한 것이다. 그것은 자식 된 자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백성이 백번 이고 이고 가야 할 진공(眞功)의 길임을 명징하게 당부하고 있다.

고운 얼굴로 당상의 부모님 기쁘게 했고	顏怡堂上老,
뱃속 아이를 낳아 잘 가르쳤다오.	胎教腹中兒.
이렇게 편안히 천년의 경사를 이루었으니	穩成千歲慶,
한시라도 슬퍼하지 마시구려.	勿起一時悲.

40 李錫庸, 『靜齋集』 卷3, 「奇子元永」, “父事已前定, 不必多言, 惟冀, 汝勿以童穉自視, 能營古君子志業, 脫鄙俗之習, 釋浮雜之念, 夙夜從容勤慎幹蠱, 於祖父腳下 孝敬備至.”

41 이동준(1977), 「유교와 충효사상: 그 현대적 의미」, 『윤리연구』 6, 한국윤리학회, p. 118.

그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1894년 직접 학문을 전수받은 겸재(謙齋) 김관술(金觀述, ?~?)의 딸과 결혼했다.⁴² 결혼 20년이 되던 해에 돌연 강제적인 사별을 앞둔 그는, 혼례를 올리던 그날과 육아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아내이자 아이 엄마가 된 그녀를 향한 애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다. 동시에 혼자 남게 될 그녀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시의 말미는, 역으로 차마 토할 수 없어 억누르고 있을 미안함과 안타까운 그의 내면을 유추하게 만든다. 비록 직접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홀연히 들이닥친 이별을 그저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무력감과 아이와 부인만을 남겨둔 채 떠나야만 하는 진한 서글픔도 포착된다. 이러한 감정은 부모와 처자, 이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고향’이라는 공간을 상상할 때도 유사했다.

제비들의 소리 늦봄을 알리고	鸛鷦聲中報晚春,
천막 같은 집도 나날이 따뜻해져 객의 수심 새로워지네.	穹廬日暖客愁新.
삼봉산의 꽃 버들은 도리어 무탈할 것이니	三山花柳猶無恙,
응당 동풍을 향하며 주인을 기다리겠네.	應向東風待主人. ⁴³

삼산(三山)은 그가 태어난 삼봉촌에 있는 삼봉산을 이르고 궁여(穹廬)는 본래 북쪽의 오랑캐 유목민이 거처하는 천막인데 시에서는 감옥을 의미한다. 닫히고 차단된 공간에 들려오는 제비들의 소리와 문득 감지되는 따뜻해진 날씨는 그의 수심을 자극하고 또 배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느껴보는 춘색(春色)은, 따뜻한 고향이 아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억압의 장치들 사이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⁴⁴ 그는 단절과 고립을 상징하는 감옥이라는 공간

42 오병무(2002), p. 24.

43 시주(詩注)는 “右三月三日思鄉詩”이다. 이에 따르면 본 시는 양력 3월 29일에 창작된 시로, 이때는 사형집행 약 한 달 전이다.

44 차민기(1999), 「한국 근대 옥중시와 공간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1, 현대문학이론학회, p. 388.

너머의 고향을 사유하며 그 공간의 풍경을 되새겨본다. 그러면서 꽃과 버드나무 그리고 동풍이 어우러져 펼쳐질 ‘봄’이라는 풍경 속에, 이제 자신의 ‘자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작자는 ‘고향의 봄’과 헤어질 결심을 마치려 하나, 내면에 일렁이는 생생한 고향의 풍경과 차마 작별할 수 없어 그저 서글피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들을 향한 시에는 의병장 이석용에서 벗어나, 자연인 이석용의 인간적 고뇌와 비애가 두드러져 있었다. 가족들에게 전하는 작품에는 걱정적인 감정을 내리누르며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히 작별의 소회를 담아냈지만, 내면의 심연에 교차하고 있었던 아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하는 강한 맥박 또한 감지된다. 이루 다 말할 수 없기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한 ‘겹설움’의 흔적들이 구절과 시어 사이사이에 촘촘히 서려있었던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사형’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결합 되어 창작되었다. 작품들은 복잡한 수식이나 긴 호흡을 자제하면서 짧고 간명한 시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도 명철(明徹)히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우선, 시에는 애써 ‘삶의 희망’을 구하려는 것이 아닌 눈앞에 닥친 비극을 직시하고, 자신의 죽음을 민족 공동체의 유의미한 ‘울림과 호소’로 만들고자 했던 내적 몸부림이 그 이면에 서려 있었다. 반대로, 죽음과 마주해야 했던 ‘인간적인 변민’ 역시 발견되었다.

시에는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이러한 감정들을 걱정적으로 토로하기보다, 자신의 부제로 인해 비탄과 산창(酸愴)에 빠질 가족들을 심심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면모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러한 담담한 시의(詩意)를 담아내기까지, 그가 감내하고 버텼어야 할 내적 고통의 무게 역시 충분히

헤아려지기에 시의 비감은 한층 더해진다. 작품에는 민족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가혹한 탄압과 폭력적 통치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막아내려다 이내 산화하고 말았던, 젊은 의병장의 투철하고 고결했던 삶과 정신이 응고되어 있다.

20세기의 한시는, 왕조시대의 해체와 식민지적 근대와 맞물리며 마치 ‘수명을 다한 과거의 유산’이자 ‘상투적인 고식’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물론, 당시의 한시는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나 점차 주변화되어갔고, 또한 문학장에서 서서히 배제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시라는 장르가 시대적·민족적 과제에서 벗어나 무의미한 음풍농월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를 포함한 이 시기 의병들의 한시가 증명하고 있다. 즉 이 시기의 특수한 정신과 생명력을 담고 있는 의병 문학은 분명,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를 아우르는 근대 한시의 유의미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들은 근대기 저항문학의 선하(先河)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이석용을 포함한 이 시기 의병의 상당수는, 예컨대 한말 사대가와 같은 전통 문인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이들 작품에서 고도로 숙련된 문예미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또 다소 투박하고 거친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들은 당대의 ‘숨결’을 또렷하고도 생생히 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의병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주목할 만한 일면이다. 즉 문인으로서의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이들의 작품들은,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당대를 살아간 향촌 지식인의 안과 밖을 보다 선명하고 투명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요컨대, 그의 작품은 이석용 개인을 넘어 당대 의병의 뜨거운 내면의 온도를 담으면서도, ‘보통의 삶’이 무너지고 짓이겨진 식민지의 실상까지 담고 있다. 동시에 ‘한시’ 속에 담긴 치열한 저항의 면모와 함께 처절하면서도 강인했던 삶의 의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감옥’이라는 공간을 재차 주목하게 만든다. 그곳은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된 민족사적 상흔이 얼룩진 공간이었지만, 역으로 예리하고 강인했던 의병의 지취가 여실히 담긴 저항문학

의 산실이었다.

참고문헌

자료

『정재집』, 『기려수필』, 『매천야록』, 『매일신보』

논저

- 김상기(2009),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호서사학회.
- 김항기(2018),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민병수(1974), 「구한말 우국한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2, 한국고전문학회.
- 오병무(2002), 『정재 이석용의 생애와 의병 활동』, 『정재이석용문집』, 임실문화원.
- 전병무(2022), 「1910년대 사형 순국한 의병 연구」, 『한국학 논총』 5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이동준(1977), 「유교와 충효사상: 그 현대적 의의」, 『윤리연구』 6, 한국윤리학회.
- 임준철(2017), 「자만시의 자아 혼성(hybrid)과 시적 정체성」, 『한자한문연구』 12, 고려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차민기(1999), 「한국 근대 옥중시와 공간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1, 현대문학이론학회.
- 최정기(2000), 「감옥: 규율권력의 길들이기와 욕망의 탈주」, 『진보평론』 4, 뉴래디컬리뷰.
- 한길로(2024), 「정재 이석용의 시 세계 고찰」, 『민족문화』 89,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 홍문기(2019), 「1894년 감옥규칙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 양상」, 『한국사연구』 185, 한국사연구회.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한국고전번역원 고전db(<https://db.itkc.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s://db.history.go.kr/>)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4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8일

ABSTRACT

A Study on the Inner World of Poems Written in Prison by the Righteous Army Commander in the Early Modern Korea

Han, Gil Ro*

Focusing on JeongJae Lee Seok-yong

The study analyzes the poems of Lee Seok-yong, the leader of Joseon's righteous army, who was condemned as a "crime leader" by the Japanese. It focuses on the works composed while awaiting execution after the death sentence, and attempts to reveal how his poems embody resistance to colonial oppression and existential despair. The analysis shows that his prison writings reflect the indomitable spirit of resisting imperialist aggression and at the same time convey deep regret for his family through intimate passages dealing with inevitable death. Ultimately, these works are historical evidence of the sacrifices of independence activists, capturing the resilient spirit of Korean modern resistance literature. By linking literary analysis with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highlights the urgency of reinterpreting colonial-era Chinese poetry, and highlights prisons as spaces of debate where ideological struggle and human vulnerability intersec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Jilin University

Keywords JeongJae, Lee Seok-yong, *JeongJaejip*, Honam Righteous Army, Resistance literature, Poetry Written in Prison